

高级韩语

上

编著

金龙华

*gaoji
hanyu*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고급한국어

高级韩语

上

编著：全龙华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高级韩语(上)/全龙华编著. —延吉:延边大学出版社,
2009. 8

ISBN 978 - 7 - 5634 - 2867 - 0

I. 高… II. 全… III. 朝鲜语 - 高等学校 - 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162031 号

高级韩语 (上)

编著: 全龙华

责任编辑: 金美淑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ydcbs.com>

E-mail: ydcbs@ydcbs.com

电话: 0433 - 2732435 传真: 0433 - 2732434

发行部电话: 0433 - 2133001 传真: 0433 - 2733266

印刷: 北京中创彩色印刷有限公司

开本: 720 × 990 毫米 1/16

印张: 29.75 字数: 400 千字

印数: 1—2000

版次: 2009 年 9 月第 1 版

印次: 2009 年 9 月第 1 次

ISBN 978 - 7 - 5634 - 2867 - 0

定价: 36.00 元

编写和使用说明

由于中韩两国经济、文化等多领域的广泛合作交流，中国韩语教育近年来取得了前所未有的发展。已有 60 多所大学开设了韩语学科，众多出版社正在竞相出版与韩语相关的图书。但是，我国的韩语教育依然面临着许多需要解决的课题和问题，其中急需解决的课题，就是编写符合中国学生学习韩语特点的高质量的韩语教材。根据这种实际情况，笔者编写了这套本科生专用的韩语精读教材。

本套韩语精读课教材分《初级韩语》（上、下）、《中级韩语》（上、下）、《高级韩语》（上、下）共六册，按每周 8~10 学时计算，每册使用一个学期。

本套教材有如下几个方面的特点：

1. 在教学法的取舍上，考虑到教学对象是学习韩语的本科生，因此采用了以教授韩语语法为主的教学思想，这样可以使学生掌握扎实的语言基础知识。

2. 在教学内容方面，努力体现现代语言教学理论的新成果，在加强基础知识学习和基本训练的过程中，使基础知识转化为言语技能，从而有利于培养学生良好的听、说、读、写能力。

3. 系统编排教学内容，由浅入深、循序渐进、点面结合、逐步扩展、循环往复，系统复现，以加深学生对韩语知识的记忆。

4. 教科书紧密联系学生的生活实际，提供活的、真实的语言材料，不单纯为学生学语言而教语言。本教材强调应用，在用中学，在学中用，使学生有机会接触和使用韩语实用语料，做到学以致用。

5. 教材把语言和文化要素结合起来，书中和文化相关的文章较多。以语言为载体，培养学生的跨文化交际能力和思考能力。

6. 练习题按照模仿、记忆、应用的顺序，以启发学生举一反三的能力思考为目的，设计了多种多样的形式，而且也考虑到了韩语能力等级考试的命题倾向。

由于我们的能力和经验等方面的不足，笔者编写的这套教材会有很多纰漏和缺陷，还望各方专家、学者给予指正。

编 者

2009 年 7 月



目 录

第1课	노란 손수건	(1)
第2课	묵주알	(15)
第3课	어느 문명인의 실종	(32)
第4课	무말랭이의 맛	(47)
第5课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64)
第6课	우동 한 그릇	(79)
第7课	놀부 할아버지의 땅	(99)
第8课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115)
第9课	대중, 대중 사회, 대중 문화	(131)
第10课	미뉴에트	(149)
第11课	유머의 위력	(167)
第12课	선의의 불씨	(183)
第13课	경제학을 전공하는 J양에게	(201)
第14课	독립 영웅	(219)
第15课	소나기	(237)
第16课	한국미의 재발견	(260)
第17课	B 사감과 러브레터	(279)
第18课	마지막 잎새	(299)
第19课	잉카문명을 찾아서	(317)
第20课	요람기	(336)
词汇附录		(361)



第1课

노란 손수건

오천석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붐비었다.

생기찬 모습의 젊은 남녀 세 쌍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이름높은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곧 출발했다. 황금빛 사장과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차창 밖으로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가 뒤로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 쌍의 남녀들은 알지 못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주를 지나갈 무렵쯤 되어서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여 조용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만으로는 나이가 어림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그 남녀들이 무안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외의 어떤 음식점 앞에 멈추었다. 승객들은 다투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다. 단 한 사람 그 돌부처 같은 사내만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거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멋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병사일까?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워싱턴을 떠날 때 일행 중의 용감한 여자가 그 남자의 옆자리에 가 앉아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그렇게도 경치가 멋지다면서요?”

하고 명랑하게 물었다.

“그렇지요.”

한참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기억이라도 떠오른 것이었을까.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자신을 얻은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시 말했다.

“고맙소.”

그는 얇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여자가 컵에 따라 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완강한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여자가 다시 일행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는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가 다시 음식점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 사내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젊은 여자가 그에게 자기들과 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이 으레 그러듯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하였다. 젊은이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야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리 높여 재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젊은 여자가 또 그의 옆자리에 가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그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던가요?”

젊은 여자가 혀를 끌끌 차고 나서 물었다.

“잘 모르겠소.”

“잘 모르다니요?”

그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했었소.”

그는 가느스름하게 눈을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면,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 달라고 했소.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해도 좋다고 말ियो.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요. 나를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썼소.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말ियो. 그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 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또 편지를 썼소. 옛날에 우리는 그때 부른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소.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매어 두라고 말했소.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잊겠다고 썼소.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진 가 버리는 거요.”

여자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일행들도 빙고가 보여 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 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서 지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마치 자기들의 일이거나 한 것처럼 모두들 흥분에 들떠 제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폈다.



꾸겨지고 남아빠진 빙고의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비록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과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사진 속의 어린애들은 아직 어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부른스위크가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다가붙어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부른스위크가 가까와 올수록 버스 안에는 뒤숭숭한 설레임의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상스런 정적이 버스 안을 채웠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빙고라는 사나이가 집을 비운 그 잃어버린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누구라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와졌다.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스라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별안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났 잃은 사람처럼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나무는,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词 汇

정류소	[名]	车站, 停车站
빽비다	[形]	拥挤; 繁忙; 烦忙; 混乱
생기	[名]	生机, 朝气, 生气
차다	[自动]	充满, 饱含; 满盈
쌍	[名]	双
까불거리다	[自, 他]	轻举妄动, 不本分, 调皮捣蛋
샌드위치	[名]	三明治, 夹心面包
플로리다주	[名]	佛罗里达州
이름높다	[惯]	名声显赫, 久负盛名
승객	[名]	乘客
황금빛	[名]	金黄色
사장	[名]	沙滩
부서지다	[自动]	碎, 破碎; 破灭
움츠러들다	[自动]	低落, 气馁; 瑟缩
회색	[名]	灰色
뉴욕	[名]	纽约
시가	[名]	市区
뉴저지주	[名]	新泽西州
앞자리	[名]	前面的位置, 前座
허술하다	[形]	破旧; 不精明
사내	[名]	男子, 男子汉, 汉子
돌부처	[名]	沉默寡言的人; 石佛
묵묵히	[副]	默默地
앞쪽	[名]	前面, 前方
응시하다	[他动]	凝视
먼지	[名]	灰尘



더러워지다	[自动]	脏了, 变脏, 污染
어림되다	[自动]	估计, 估量, 估摸
입술	[名]	嘴唇
깨물다	[他动]	咬
조잘거리다	[自动]	唧唧喳喳, 叽叽喳喳
무안하다	[形]	不好意思, 寒碜; 没脸, 羞愧, 难为情
한사코	[副]	偏要, 一定, 拼命
침묵	[名]	沉默
워싱턴	[名]	华盛顿(美国首都)
교외	[名]	郊外
다투다	[自, 他]	竞争, 争夺; 争吵, 争论, 争辩, 争执
허기지다	[自动]	饥饿, 饥肠辘辘; 如饥似渴, 渴望
채우다	[他动]	填满, 装满, 灌满; 满足(欲望)
눌러앉다	[自动]	仍然坐着
아무래도	[副]	怎么说, 不管怎么样, 还是
심상하다	[形]	寻常
거동	[名]	举动, 举止, 行为
정체	[名]	原形, 真面目; 本心
호기심	[名]	好奇心
멋대로	[副]	任意, 随便, 随心所欲
선장	[名]	船长
도망치다	[自动]	逃跑, 溜走
퇴역	[名]	退役
병사	[名]	士兵; 军人
태우다	[他动]	载, 使乘坐
일행	[名]	一行
용감하다	[形]	勇敢
명랑하다	[形]	明朗, 爽朗, 明快; 晴朗
가라앉다	[自动]	沉静, 低沉, 消沉; 镇静, 镇定, 平息
야릇하다	[形]	奇怪, 奇异, 奇妙, 神秘



우수	[名]	忧愁
그림자	[名]	影, 影子; 踪影
자신	[名]	信心, 把握, 自信
얇다	[形]	(笑容等)轻微
모금	[依存]	口(水、酒之类)
완강하다	[形]	顽强
잠을 청하다	[惯]	努力(入睡)
기대다	[自, 他]	倚, 倚靠; 依赖, 依靠
붙이다	[他动]	攀谈, 攀话(儿), 搭话
제의하다	[他动]	提议
수줍다	[形]	不好意思, 腼腆, 害羞, 害臊
뒤숭숭하다	[形]	心乱, 心绪烦乱, 心神不宁
으레	[副]	必然, 必定, 总是; 当然, 应当
연신	[副]	连着
물다	[他动]	叼; 噙, 含, 衔
들뜨다	[自动]	心浮, 心不在焉, 心神不宁
야영	[名]	野营, 露营
재잘거리다	[自动]	嘁嘁喳喳, 喋喋不休
형무소	[名]	监狱, 监牢
석방되다	[自动]	释放
혀를 차다	[惯]	咂舌
끝끝	[副]	啧啧(咂舌声)
가느스름하다	[形]	稍细, 较细
비우다	[他动]	空出, 腾出
충분히	[副]	充分, 充足
재혼	[名]	再婚
붉히다	[他动]	红了(脸)
가석방	[名]	假释
확실하다	[形]	确实, 准确
부른스위크	[名]	不伦瑞克



高级韩语(上)

어귀	[名]	口, 入口
붙들다	[他动]	抓住, 攥住; 抓, 逮住, 搀住
매다	[他动]	系; 拴; 扎, 结
전개되다	[自动]	展开; 展现; 开展, 进行
광경	[名]	光景, 情景, 景况, 境况, 处境, 样子
날개	[名]	翼, 翅膀; 机翼
펴다	[他动]	铺开, 打开, 展开; 舒展, 舒张
꾸겨지다	[自动]	捏皱, 揉皱
낡다	[形]	旧, 陈旧, 老, 过时
부인	[名]	夫人; 妇女, 已婚女子
나란히	[副]	并排地, 肩挨肩地
얌전하다	[形]	斯文, 文雅, 文静; 典雅, 雅致, 有品位
이정표	[名]	路标, 里程碑
마일	[依存]	英里(相当于1,609米)
다가붙다	[自动]	靠近, 贴近, 逼近
조마조마하다	[形]	提心吊胆地, 忐忑不安地, 谨小慎微地
설레임	[名]	激动, 澎湃, 激荡
정적	[名]	寂静, 沉寂
어두컴컴하다	[形]	昏黑, 昏暗
휩싸이다	[自动]	被抱住, 被裹住, 被围住; 被掩盖, 被掩饰
분위기	[名]	氛围, 气氛; 空气
사나이	[名]	男子, 汉子, 男子汉
상징하다	[他动]	象征
흥분하다	[自动]	兴奋, 激动, 冲动
돌리다	[他动]	转, 扭
창밖	[名]	窗外
굳어지다	[自动]	麻木; 变硬, 硬化
긴장감	[名]	紧张感
실망	[名]	失望
각오	[名]	觉悟, 醒悟, 明白



단단히	[副]	坚强地; 牢固地, 坚实地; 严厉地
끼었다	[他动]	泼, 撩, 洒
엔진	[名]	发动机
꿈결	[名]	梦中; (时间)一晃, 转瞬间
아스라하다	[形]	模糊; 遥远, 渺茫
고막	[名]	鼓膜
두드리다	[他动]	敲, 叩, 拍打
별안간	[副]	转瞬间, 转眼间, 突然间, 忽然
함성	[名]	喊叫声
박차다	[他动]	踹, 踢; 克服, 排除
멍하다	[形]	发呆, 发蒙, 愣神儿
넋 잃다	[自动]	失魂落魄
차창	[名]	车窗
시선	[名]	视线, 眼光, 目光
고정하다	[他动]	盯住; 固定
온통	[名, 副]	整个, 全部, 完全
물결	[名]	水波, 波浪, 波涛; 浪潮, 潮流
뒤덮이다	[自动]	被遮住, 被覆盖, 被罩上
환영	[名]	欢迎
깃발	[名]	旗帜
물결치다	[自动]	波涌, 起伏
전과자	[名]	有前科者

练习

练习一

아름하다, 뒤숭숭하다, 기대다, 조마조마하다, 봄비다,
멍하다, 허술하다, 아스라하다, 무안하다, 휩싸이다



1. 명동은 하루 50만여 명의 쇼핑객과 관광객으로 ()는 서울의 대표적 쇼핑 공간이다.
2. 그의 옷차림만으로는 너무도 ()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3. 상대가 바라보자 처녀는 () 듯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를 숙었다.
4. 나의 말을 듣고는 입가에 비웃음인지 칭찬인지 () 미소가 떠올랐다.
5. 높은 곳에서 난간에 몸을 ()고 사진을 찍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6. 밤이 깊어서 모두들 헤어진 뒤 그 큰 방에서 혼자 잠이 드니 꿈자리가 () .
7. 그들은 다툼을 며칠씩 계속하고, 그러고나서는 죽음 같은 침묵에 () 곤 했다.
8.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아 ()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9. 아주 오래되고 탈색한 사진처럼 () 추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10.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모두들 그렇게 () 게 앉아 있기만 합니까?

练习二

별안간, 아무래도, 온통, 한사코, 으레

1.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 믿으려 하지 않는다.
2. 저의 학습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는 회사 일을 마치면 () 동료들과 술 한 잔을 나누고 집으로 들어왔다.
4. 명절날 아침, () 날아든 사고 소식에 집식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



다.

5. 오늘 모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 장사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

练习三

그리고는, 그러나, 그리고, 그해나, 그러자

1. 사람은 누구나 부자이기를 바란다. ()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를 부모에게 그대로 이어받는 사회 구조는 대단히 불공정한 사회임에 틀림없다.
2. 우선 찜질방에 가면 찜질방에서 제공되는 편한 티셔츠로 갈아입고 땀을 흘리며 친구랑 얘기를 나눈다. () 간단한 식사를 하고 피곤하면 잠도 잔다.
3. “내가 사용하는 용돈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란다. 여러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 늘 돈이 생기면 그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4.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새는 날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5.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인연과 만날까? K 씨와의 통화 이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관련한 인연은 얼마나 될지? ()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练习四

1. “단 한 사람 그 돌부처 같은 사내만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에서 ‘돌부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까?
2.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이 으레 그러듯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하였다.”에서 ‘그러듯’은 어떠하듯이라는 말입니까?



3.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그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에서 ‘두 손 들다’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까?
4.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부른스위크가 가까와 올수록 버스 안에는 뒤숭숭한 설레임의 공기가 흘렀다.”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5.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보였다.”에서 ‘그 실망의 순간’은 어느 순간을 말합니까?

练习五

1. 세 쌍의 남녀들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길입니까?
2. 세 쌍의 남녀들은 왜 빙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3. 빙고는 어떻게 되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4. 빙고는 몇년 전 아내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까?
5. 빙고는 지난 주일 아내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까?

练习六

문장의 주제를 개괄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